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마침내 개막했다. KBS는 월드컵 기간 우리 대표팀 경기는 물론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경기들을 최고의 중계방송을 통해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전할 계획이다.

KBS는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TV와 2TV, 라디오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29일간 펼쳐질 주요 경기들을 중계방송한다.

H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11월 24일에 우루과이(피파 랭킹 14위)와 첫 경기를 치르고, 28일 가나(피파 랭킹 61위), 그리고 12월 3일 포르투갈(피파 랭킹 9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KBS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우리 선수들의 생생한 경기 전 현장 모습을 그라운드 카메라에 담아 단독 생중계할 예정이어서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중계방송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중계 외에도 KBS는 <월드컵 하이라이트>(1TV, 오후 시간대)와 <굿모닝 카타르>(2TV, 오전 시간대)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경기 소식을 포함한 월드컵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1라디오도 12월 1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함께 꾸는 꿈 -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전문가와 함께 주간 경기내용을 분석하고 카타르를 연결해 현지 분위기도 살펴본다.

KBS는 이 밖에도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 my K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월드컵 관련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다. 축구 AI 전문기업과 협업으로 선보이는 'AI 서비스'(축구 AI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각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비교 등의 정보를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TV'를 통해서도 월드컵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 UHDTV를 소지한 시청자들은 KBS가 제공하는 'TIVIVA mini 양방향 서비스'(지상파 UHD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UHD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다 풍성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KBS는 월드컵 기간동안 5G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난시청 없이 방송 시청이 가능한 '이어도 서비스'(미디어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ATSC 3.0(방송망)과 5G(통신망) 연결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한편 KBS는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선보일 예정인데, 일일 조회 수 평균 100만 회로 축구 채널 중 압도적 1위인 '이스타TV'와 조원희 해설위원의 '이거해조 원희형', 젊은 축구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수날' 등과 함께 2049 시청자 등 다양한 시청층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BS는 이번 월드컵 중계방송을 위해 현역 선수이자 '카타르 소식통'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출신 구자철을 신임 해설위원으로 발탁했다. 개막전 중계를 통해 처음으로 합을 맞춘 구자철 위원과 이광용 캐스터는 앞으로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 등을 중계한다. 또한 조원희, 한준희 해설위원과 남현종 캐스터 등 믿고 보는 '월드컵 중계 드림팀'도 현장의 감동과 재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예선전 중계 일정

1	2022 11 24 22:00	KBS2	VS	URUGUAY
2	2022 11 28 22:00	KBS2	VS	GHANA
3	2022 12 03 00:00	KBS2	VS	PORTUGAL





1TV·1라디오·2FM, ‘2021년도 방송평가’ 1위

KBS 1TV가 <2021년도 방송평가> 지상파 TV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1월 2일 발표한 <2021년도 방송평가>에 따르면, 지상파 TV 부문에서는 KBS 1TV가 700점 만점에 629점(2020년도 608점, 1위)을 얻어 2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고, MBC(583점)와 SBS(571점)가 그 뒤를 이었다. 2TV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565점으로 4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의 522점에 비해 점수가 크게 올랐다.

AM 라디오 부문에서는 1라디오가 234점(2020년도 240점, 1위)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FM 라디오 부문에서도 2FM이 226점(2020년도 209점, 4위)으로 1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KBS 1TV의 경우 재무 건전성, 콘텐츠 투자, 자체심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항목 등이 개선된 점에서, 1라디오의 경우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난방송, 재무 건전성, 인적 자원 개발 투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 영역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세대공감강연토크쇼

빅체인지
2030

11월 20일 방송된 <상식의 변화,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편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교수가 미래의 트렌드와 일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미래의 주역이 될 2030세대를 위한 강연쇼 <빅체인지 2030>이 준비한 나머지 3편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소개한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Ⅰ 기후의 변화,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꾼다

매년 전 세계는 극심한 가뭄과 대홍수,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7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위기의식 속에서 생산 위주의 경제방식 대신 순환 위주의 경제방식(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30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다각도로 고민해본다.

▶ 11월 27일(일) 밤 11시 20분 KBS1



최윤식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

Ⅱ 기술의 변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경제학자 칼 베네딕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중산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만 늘어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며, 노동의 47%가 자동화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역시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어떻게 바뀔지 전망해보고 취업을 위해 2030 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 12월 4일(일) 밤 12시 20분 KBS1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Ⅲ 인구의 변화, 인구절벽 쓰나미를 대비하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0.8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7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감은 결국 노년층을 부양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 12월 11일(일) 밤 12시 20분 KBS1

KBS,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로 공익성 실현



“방송하다 사고 내면 월급이 깎이나요?”

11월 10일 KBS가 인천 부평 동암중학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방송 진로 특강’ 시간에 한 학생이 던진 질문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김종현 아나운서가 맡은 ‘아나운서의 세계’ 참석자들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 ‘과연 중학교 남학생들이 강의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담당 교사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방송국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큰 관심을 가졌다. ‘금채굴’을 ‘굴채굴’로 잘못 발음한 실수 영상을 보고 아찔한 순간을 함께 경험도 하고, 강당 화면에 띄워진 원고를 직접 읽어보며 현직 아나운서에게 교정을 받아 보면서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강의에 참석한 박시후 학생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게 됐다”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KBS는 지난 2019년부터 시청자센터에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자, PD, 아나운서 등 현업 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KBS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분야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허위조작정보 대응), 미디어 윤리 및 리터러시 향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공익성 실현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2019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에 공동 참여하고 미디어리터러시 현장 특강 등을 진행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병행해 총 4,000여 명을 교육했다. 특히 미디어의 특성과 방송 직업의 세계 등을 주제로 KBS 현업 방송인들이 강의를 사전 녹화해 각 학교와 경기미디어센터 등에서 진행한 온라인 강의는 큰 호평을 받았다.

2021년에는 현업 방송인 52명이 특강 강사로 참여해 전국 61개 초·중·고교에서 총 8,1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교육(방송인 특강, 진로 멘토 특강, 학교 동아리 미디어교육 등)을 실시했다. 올해는 시청자미디어재단(경기 및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등과 협력해 현업 방송인 30여 명이 초·중·고교 학생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판별, 진로 멘토링,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KBS 견학홀 내 미디어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미디어의 특성과 미래, 다양한 방송직업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견학홀을 방문한 초·중·고교 중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21개 학교 449명,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견학을 휴관으로 6개 학교 98명, 2021년에는 7개 학교(청소년 장애인복지관 포함) 143명, 올해는 50개 학교(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포함) 9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I·N·T·E·R·V·I·E·W



Q KBS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함께 진행한 소감은?

우리 학생들이 방송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직업군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꾸게 된 친구도 생겨서 좋았습니다. KBS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 다양한 꿈을 이루기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을 만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미디어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미디어는 우리 사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 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 KB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KBS는 아이들이 주위에서 쉽게 접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시청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운서의 세계’와 같은 강의처럼 청소년을 위한 강연을 KBS가 앞장서 더 많이 해주시면 일반인이 하는 다른 강의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Q 2019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비해 접하는 미디어 종류나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매체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KBS도 그래서 학교 방문 미디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만 칠천 여 명의 학생들에게 <팩트 체크>나 <저널리즘과 미디어 윤리>, <미디어 분야의 진로> 등 다양한 제목으로 강의를 해왔는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 번씩이라도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미디어에 접근하고, 또 자신이 SNS에서 주고받는 영상과 글에 대해 성찰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가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교육을 통해 KBS가 어떤 일을 하는지 KBS 직원들이 직접 설명하며 청소년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공영미디어 KBS를 알려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 코로나19 기간에도 비대면 교육은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미디어교육을 신청했다가 코로나 19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견학홀도 일정 기간 휴관을 해서 미디어교육이 멈춰선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화상 강의와 사전 녹화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또 학교 방송실 활용 강의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대면 교육보다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시청자센터에서 추구하는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은?

미디어와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KBS가 위기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영미디어로서 KBS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KBS가 해야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청소년 미디어교육입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리터러시 교육이 법제화됐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에서도 미디어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실제로도 교육 신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선 우수한 사내 강사를 많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고요, 풍부한 아카이브 자원도 잘 활용해서 KBS가 주도하는 KBS만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향점이라면 미디어 속 가짜 뉴스, 디지털 폭력, 혐오 등을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능력 뿐 아니라 스스로 좋은 미디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민주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지향점입니다.

<커튼콜>, 현재는 과거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정덕현
문화평론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현실은 지금도 봉합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아픈 상처의 역사다. 남북한이 합의해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긴 했지만 그런 만남은 어쩌면 또 헤어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움만 더 깊게 드리워놓지 않았을까. 그 상처는 여전하지만, 세대가 몇 차례 바뀌면서 흥남철수작전이나 이산가족 같은 단어들은 어딘가 점점 과거사로 치부되고 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소재는 어딘가 올드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시대를 다뤘던 콘텐츠들이 늘 해왔던 익숙한 방식의 식상함이나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주제 의식이 갖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해 생겨난 작각일 뿐이다. 같은 시대를 다뤘지만 재일한인이라는 글로벌 관점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호평을 이끌어냈던 <파친코>를 떠올려 보라.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KBS 월화드라마 <커튼콜>은 어떨까. 흥남철수작전의 긴박한 상황으로 문을 연 이 드라마 역시 이산가족이 된 자금순(하지원·고두심)의 일생을 소재로 가져왔다. 자금순은 북에 두고 온 남편 리종문(강하늘)과 그의 아들을 기다리며 바닷가 국밥집에서 일을 하다 '낙원'이라는 여관을 차렸고, 그것을 '낙원 호텔'이라는 호텔 체인으로까지 일궈냈다. 이산가족으로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낙원 호텔'은 그저 호텔이 아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서도 보이는 등대"가 그것이다. 그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찾아올 수 있게 '낙원'이라는 등대를 세웠다. <커튼콜>은 이처럼 이산가족 자금순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현대사를 낙원 호텔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세워놓고 시작한다.

하지만 <커튼콜>의 이야기는 자금순의 구구절절한 과거사에 멈춰 있지 않다. 1회 10분 동안 그 과거사를 웅장한 스케일로 빠르게 보여준 후, 이 드라마는 이미 92세의 나이가 된 현재의 자금순과 그 손자들의 이야기로 풀려간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금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본 북한의 손자를 그리워하고, 그 소원을 풀어주고자 정상철(성동일)은 연극배우 유재현(강하늘)을 3개월간 가짜 손자로 캐스팅(?)한다. 그건 일종의 사기극이지만 자금순

의 남은 나날을 행복하게 해주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유재현이 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가 된다. 물론 정상철이 제안하는 거액의 돈에 대한 유혹도 빼놓을 수 없지만.

돈과 진심은 <커튼콜>이 대결 구도로 가져온 두 요소다. 낙원 호텔은 자금순과 그의 손녀 박세연(하지원)에게는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호텔이 아니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진심이지만, 박세연의 오빠 박세준(지승현)에게는 뇌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일 뿐이다. 그래서 호텔 매각을 두고 벌어지는 박세연과 박세준의 대결 구도는 바로 이 돈과 진심의 대결로 그려진다. 이것은 또한 유재현의 연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돈의 유혹에 이끌려 가짜 손자 연기를 하게 된 것이지만 자금순을 마주하면서 그 연기에 조금씩 진심이 담기기 시작한다. 진심으로 자금순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를 위로하고픈 마음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커튼콜>의 서사는 따뜻한 휴먼드라마의 색깔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이라는 어찌 보면 익숙한 소재를 가져왔지만 <커튼콜>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다루고, 그 안에 돈과 진심의 대결 구도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서사를 그려낸다. 특히 이 드라마가 취하고 있는 자금순을 위로하는 유재현의 이야기는 그 구도가 마치 과거를 위로하는 현재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위로받는 건 자금순 뿐일까. 어쩌면 거꾸로 유재현도 위로받는 순간이 생겨나지 않을까.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소통의 지점이 <커튼콜>이 가진 서사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소셜 그래프와 콘텐츠 그래프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소셜 그래프'와 '콘텐츠 그래프'는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주최한 <2023 방송 전망 세미나(11월 4일)>를 준비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낯선 용어다.

소셜 그래프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소셜 그래프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변화의 시발점은 틱톡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숏폼(Short-form) 동영상의 도입을 넘어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을 틱톡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요즘 틱톡의 성장과 페이스북의 하락이 대비되면서 더욱 관심을 끈 '소셜 그래프(Social Graph)'는 이처럼 (썬미디어티 강정수 대표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이은북, 2022)에 쓴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셜 그래프'는 소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다. 각 개개인을 나타내는 노드(Node)와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링크(Tie)로 이루어져 있다. 하버드대 스탠퍼드 밀그램 교수가 처음 제기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연결된다고 한다. '소셜 그래프'에서는 친구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반면 신규 진입자가 영향력을 가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우리는 친구 소식을 공개 피드를 통해 확인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소통해 왔다. '소셜 그래프'의 대명사인 페이스북조차 틱톡화하는 경향을 보면 점차 '소셜 그래프'는 낡은 방식이 되고 있다.

콘텐츠 그래프

'콘텐츠 그래프(Content Graph)'는 팔로잉-팔로워 구조를 말한다. 틱톡의 기본 설정인 추천 탭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콘텐츠 그래프'이다. 틱톡 추천 알고리즘은 개별 영상을 수백 개의 파라미터(Parameter)로 구별하고 개별 이용자의 행위와 일치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낸다. 이런 매칭 작업을 통해 개별 이용자의 취향이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한다. '콘텐츠 그래프'에서는 콘텐츠만 좋으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덕분에 페이스북처럼 친구가 많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메타의 변화와 반발

메타(이전 페이스북)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지난 7월 페이스북에서 AI미디어, 소셜 그래프 피드, 사적 대화를 구별함으로써 '콘텐츠 그래프'를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페이지 세팅에서 '유사한 페이지 추천'을 선택하면 틱톡처럼 콘텐츠가 추천된다. 점차 페이스북의 홈 탭에서 개인의 콘텐츠 선호 및 소비는 인공지능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메타가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계기는 개인 정보 침해와 확장 편향 이슈, 애플의 쿠키 추적 금지(ATT, App Tracking Transparency)에 따른 타기팅(Targeting) 광고 효율의 하락 등이 한몫했다.

반면 유명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와 킴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인스타답게 만들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틱톡화 전략을 반대한다. 틱톡은 팔로워 수의 가치가 인스타그램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틱톡은 스스로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스냅은 '카메라 기업'이라고 부르듯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셜 미디어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시대에서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Z세대도 전통 소셜 미디어에는 관심이 없고 트위치(Twitch)나 디스코드(Discord) 등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다.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사회관계망과 무관하게 작동하므로 젊은 세대는 더욱 틱톡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길이가 긴 롱폼(Long-form) 콘텐츠를 제작하는 KBS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뽑아내 롱폼을 여러 개의 숏폼으로 만들거나, 처음부터 동시에 두 버전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전략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KBS 춘천방송총국

세계가 함께 보는 지역(Local) 콘텐츠를 희망하며



2014년 2월 27일로 기억된다.

여의도 KBS 본사에서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 협회 그리고 KBS의 협력제작국과 콘텐츠사업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주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외주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배분 관행 개선, 독립제작사 제작기획 확대, 친 외주제작 환경 조성, 독립제작사 제작 안정성 제고 등이 당시 설명회의

주요 안건이었으나 당시 화두였던 수신료 인상을 위해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에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는 일종의 공약같은 행사였다. 그 당시 필자는 애니메이션 업계를 대표해 참석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혈세 낭비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업계에 도움이 된다니” 하는 마음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 후 매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국정감사 때마다 언급된 뉴스를 보았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건가?”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낸 거 같다.

필자는 지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하고 있다. KBS 본사의 제작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구름뽕>, <두리둥실 뭉게공향>을 제작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11월 12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구르곰 구르닭>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가 보유한 작품들이 대부분 KBS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니메이션 분야도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외주제작이고 소외된 분야다. 공영방송이기에 어린이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KBS 춘천방송총국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즘처럼 미디어 매체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방송의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만 지역에서는 지역방송을 통하여 생산되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 정보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매달 열리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처음엔 꼼꼼히 방송을 챙겨보고 문제점을 찾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임무라 생각해 다른 위원님들과의 문제점 지적을 경주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역방송이라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춘천총국은 지난 5월 집요한 취재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부정 면허 취득>을 특종 보도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후속 보도를 이어가 ‘부정수당 환수’ 조치까지 이끌어낸 점은 지역을 떠나 전 국민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춘천총국 등 8개 지역총국이 공동 기획한 <올웨이즈 7000>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지역과 지역의 협력, 본사와 지역총국 협력의 좋은 성공사례를 보여준 동시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에게 온·오프라인 양방향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완성도를 지닌 지역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만 보여지고 소진된다는 현실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KBS 전국채널이나 KBS WORLD 내지는 KBS가 보유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대 방영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 하루빨리 KBS의 수신료 현실화가 이루어져 지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KBS를 통해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 시청하게 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남진규
춘천방송총국 시청자위원 / 디피에스 대표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대전방송총국

소소한 기쁨을 주는 공영방송 소소공방



올해 9월 1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소소공방>은 프로그램 제목처럼 평범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고 있다.

한국표준연구원 임현균 박사가 진행을 맡았는데 매주 월요일은 80세가 넘는 나이에 산골마을 도서관장이 된 원로과학자, 20대에 농부의 길을 선택한 미술 학도 등 우리 주변의 ‘특별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요일은 전문의와 함께하는 질환 상식, 면역력 높이는 식사습관 등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수요일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기보다 각자의 가정경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소소경제’ 시간으로 재무설계·보험·노후대비 등 다양한 경제정보를 쉽고 재미 있게 전달해 호평을 받고 있다. 목요일은 빨간 벽돌집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사

람,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 촌집살이를 하는 사람, 야근 대신 뜨개질을 선택한 사람 같은 ‘여가 이야기’를 들어본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쉽 없이 달려온 일 주일에 ‘쉽’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그림 한 점, 음악 한 곡, 사진 한 장, 한 편의 연극, 짧은 시 등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문화·예술 이야기를 다룬다.

연출을 담당한 임정 PD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있으면 맛없다라고 절대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자는 원칙이 <소소공방>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 40분(대전권) KBS

“어려웠던 어린 시절 받았던 도움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원주방송국 정영직 사수가 11월 9일 열린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KBS 사보가 정영직 사수에게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I·N·T·E·R·V·I·E·W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작은 나눔을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32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 입사한 1989년부터 지역 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홍천군 내면 오지마을 문화시설 개선 봉사를 시작으로, 시·군청과 힘을 합쳐 면 단위, 소규모 아파트 지역을 순회하면서 종합 이동봉사(가전제품·농기구 수리, 이미용 서비스, 자동차 점검 등)도 했구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응급조치 교육과 치악산 산악구조 대원 활동(등산객 응급처치, 탐방로 안전산행 지원, 공원 환경정화 등)도 하고 있습니다. 태풍·장마로 인한 수해 때에는 피해 가구를 찾아가 가전사, 보일러사 분들과 함께 복구를 지원했고, 원주방송국 사랑의 봉사전 활동을 통해 영유아 돌봄과 방송국 초청 견학, 밥상공동체 급식, 연탄배달 봉사, 김장 봉사, TV 안테나 공사청 시설 지원 등의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축제 코로나 방역지원과 더불어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 위원으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Q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도 헤어진 후 여러 친척 집에서 머물며 자랐는데, 주변 지인들과 동급생들로부터 물품, 도시락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 생활에 역력이 생기면서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나눔을 어려운 분들에게 되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했고 이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영유아원 아이들을 방송국에 초청해 기자·아나운서·작가·엔지니어 같은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견학 후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얼굴에 묻혀가며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TV나 전기 시설을 고쳐드렸을 때 “이제 TV가 잘 나오고 불도 들어온다”며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고 환하게 웃어주실 때도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Q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정이 편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한 배우자가 있어 행복하게 봉사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니는 회사에서 시청과 결연을 맺어 매년 기부를 실천하고 있고, 딸 또한 세월호 참사 때 SNS를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리더로 활동하는 등 가족들도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지역 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자 발굴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6·25 피난 방송했던 재미교포 김유선 씨 50년 만에 KBS 찾아 감동의 눈물 흘려



10월 28일 KBS에는 갑작스럽지만 뜻깊은 방문 행사가 있었다.
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재미교포 김유선(93세) 씨가 KBS를 찾아온 것. 6·25 때 피난 방송까지 담당했던 김 씨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최근 딸, 손자와 함께 오랜만에 고국을 찾아왔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에서 우연히 정청래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마주 앉게 됐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고 오래전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김 씨의 사연을 들은 정 의원의 주선으로 김 씨는 50여 년 만에 친정인 KBS를 방문하게 됐다.
김 씨는 김의철 사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뒤 생방송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아나운서실을 방문해 후배 아나운서들과도 만났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후배들이 보여준 ‘서울중앙방송국(KBS) 아나운서실을 빛낸 사람들’ 액자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사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내 이름 ‘김유선’이 한자로 적혀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 방송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아나운서 여러분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KBS의 국제 뉴스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다”며 뜻깊은 추억을 선물해준 KBS와 관계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첫눈의 조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곱게 물들었던 단풍 앞들이 이제는 낙엽이 됐는데요. 아침 기온이 0℃ 안팎까지 내려가며 제법 초겨울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씨 예보에서 눈 소식도 듣게 될 텐데요. 서울에선 보통 11월 하순에 첫눈이 내립니다. 올가을엔 언제쯤 눈이 올까요.

‘첫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기상 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될 때 서울의 첫눈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다른 지역에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기상 관측소에 근무하는 ‘관측관의 눈으로 직접’ 눈을 관

측했을 때를 첫눈으로 봅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관측소나 기상대에서 관측관이 직접 눈을 관측할 때를 첫눈으로 인정합니다. 기상청 관측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기상 상황을 관측하는데요. 첫눈의 양에 대한 기준은 없어 싸락눈이든 진눈깨비든, 눈이 내리는 현상만 관측되면 첫눈으로 봅니다.

‘눈 오는 날은 거지가 빨래하는 날’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 오히려 춥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을 뒤덮은 구름 때문입니다. 맑은 날엔 복사냉각이 활발해 밤새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만, 구름이 많으면 맑은 날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불 효과’라고도 합니다. 눈구름이 하늘을 이불처럼 덮어 눈이 오는 날엔 오히려 포근한 기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옛말도 만들어진 거죠.

물론 한파가 몰려올 때도 눈이 내립니다. 북서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날 때,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인해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겨울 한파가 몰려올 때면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집니다.

이제 곧 눈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이맘때면 김장도 시작됩니다. 김장은 보통 ‘소설’ 절기를 전후

해 중부지방부터 시작됩니다.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데에는 날씨가 중요한데요. ‘소설’ 절기 즈음엔 최저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너무 낮으면 배추가 얼 염려가 있고 기온이 너무 높으면 김치가 금세 익어버려 이맘때가 김장하기에 가장 좋은데요. 올해 ‘소설’ 절기는 11월 22입니다. 올해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역에선 11월 하순~12월 상순에 김장하는 게 좋고요. 동해안은 12월 상순~중순, 남해안은 12월 하순~1월 상순에 김장하면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김장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중생활 ‘홍탁목포집’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맛집 기행



노중훈 여행작가

홍탁목포집은 점심과 저녁이 판판이다. 즐거운 판판이다. 점심에는 국수를 내고, 저녁에는 수육과 홍어 등을 차린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저녁은 경쟁률이 높다. 알음알음 소문이 번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일은 많은데 자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테이블이 하나다. 처음에는 여느 식당과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테이블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자 어머니가 직접 수치를 재서 서울중앙시장에 제작을 의뢰한 맞춤형 테이블이다. 다른 식당에서는 여간해서 찾아보기 어려운, 영락없는 술청(술집에서 술을 따라 놓는 널빤지로 만든 긴 탁자)의 형태다.

나는 낮에 한 번, 저녁에 세 번 가봤다. 한낮의 국수 밥상은 열무김치가 독장치는 무대였다. 열무김

치는 물국수에서도 비빔국수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심지어 유일무이한 반찬도 열무김치. 나는 김북은 보리고추장이 들어간 비빔국수를 주로 먹었는데, 달지 않고 짜지 않아 입맛에 잘 맞았다. 대신 꽤나 매웠다. 물국수를 선택한 후배들은 조금 싱겁다고 했다. 콩국수도 있다. 주인아주머니 올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강원도 원주에서 직거래로 받는 서리태가 큰소리치는 국물이다. 검질 기계 끈기 있는 국물이 옥수수가 섞인 면발과 합심해 입안 가득 목직함을 배달한다.

홍탁목포집의 저녁은 주당들의 천국이다. 주당이 아니어도 물개박수를 치겠지만 주당이라면 어머니가 그린 음식의 풍경 앞에서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 주연배우인 수육과 홍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식탁은 베테랑 조연들로 득시글거린다. 때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라지겠지만 김치와 장류가 끝내준다. 내가 ‘1차 원정대’를 꾸려 맛본 배추김치는 거추장스런 양념을 덜어내고 새우젓 중심으로 매조지(마무리) 해서 답답함이 없고 화통하고 산뜻했다. 열갈이배추로 무친 겉절이도 텅텅함이 전혀 없고 고추, 오이, 마늘, 셀러리 등으로 담근 장아찌도 경쾌했다. 파김치는 파김치가 될 때까지 먹고 싶었다. 영암이 고향인 어머니는 전라도 음식 하면 으레 떠올리는 두툽고 진한 양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접 담그고 양념한다는 된장과 마늘고추장과 새우젓도 모두모두 밥도둑이자 고기도둑이다. 아아, 구뜰한 된장으로 버무린 시래기볶음은 또 어땠고.

주요리로 젓가락을 옮기자, 두툽한 비계를 달고 두툽하게 썰린 돼지고기 수육은 탄탄하기 이를 데

없다. 나태하고 물렁한 부분이 없어 저작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자체로 완결성을 띠지만 어머니의 김치, 어머니의 장, 어머니의 젓갈과 상봉하면 그야말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드디어 홍어회 납신다. 홍어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내 입에는 큰 자극 없는 온순한 맛이다. “10일 정도 삭혔어요. 아직 반도 안 됐지. 23~24일까지도 가요. 오래 묵히면 향과 맛은 진해지는데 살이 물러지지.” 입천장이 흘랑 까져도 좋으니, 아니 흘랑당 까지고 싶어 죽겠으니, 독한 홍어회를 맛본 지가 너무 오래돼 미칠 지경이니 어머니의 짜릿한 홍어회를 언젠가 꼭 맛보고 싶다. 홍탁목포집에서의 두 번째 회동에서는 강건한 느낌의 삶은 돼지고기, 삭혔지만 싱싱한 홍어회, 녹진함의 대명사 홍어애(홍어 간) 이외에 김밥도 먹는 행운을 누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식당에서 딱 세 번(내가 먹은 날 포함) 김밥을 말았다고 한다. 아, 정말이지 먹을 복 하나는 타고났다.



·주소: 서울시 중구 청구로 86-1
·전화번호: 010-7921-4799
·메뉴: 국수, 수육, 홍어

김의철 사장, 세계공영방송총회(PBI)서 공영방송 가치 논의



KBS 사장·NHK 회장 면담

김의철 사장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공영방송총회(PBI)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명암 그리고 경쟁적 상황에서 공영미디어의 지속 가능성 및 KBS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우수 공영방송사 사장들과 공영방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사장은 특히 올해로 공영방송 100주년을 맞이한 BBC의 팀 데이비 사장으로 부터 BBC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영방송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에 대해 들은 뒤 내년에 공사 창립 50주년이 되는 KBS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올해 PBI 총회 주관사인 NHK의 마에다 데루노부 회장, 마사카키 사토루 부회장과 면담 자리에서는 양사의 수신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40여 년간 이어져 온 미디어 협력회의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0년 창설된 PBI는 전 세계 공영방송사 CEO 등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지상파 방송사에 한 해 가입 자격이 부여된 세계 유일의 공영미디어 최고위급 국제교류 플랫폼이다.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 카자흐스탄서 개최

‘2022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11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 연합 : 19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 국가들)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눈물의 섬 사할린’을 출품한 김경순 씨가 성인 부문 대상을 받는 등 20명이 수상했다. 이밖에 내년에 발간 100주년을 맞는 고려일보 한글판 주필 남경자 씨가 공로상을, 한인과 고려인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문화원 김상욱 원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방송인 이소연과 작곡가 이호섭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고려인들로 구성된 비단길합창단의 ‘한 많은 대동강’을 시작으로 가수 강진과 홍시가 한국 가요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고향합창단의 ‘고려아리랑’ 대합창에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KBS 한민족 체험수기는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해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과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상식은 KBS 한민족방송(AM 97.2, 1170kHz)을 통해 12월 24일 방송될 예정으로, KBS 라디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콩(KONG)을 통해서도 전 세계로 방송된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

1라디오(수도권 97.3MHz)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10월 29일 기준). 이는 국내 라디오 유튜브 채널 중 KBS 쿨 FM, SBS 라디오에 이어 세 번째다. 이같은 성과는 제작진이 지상파 라디오와 유튜브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해 상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 전략이 주요한 결과다. 특히 1라디오의 출퇴근 시간대 거점 프로그램인 <최경영의 최강시사>, <주진우 라이브>와 대표 경제 프로그램인 <홍사훈의 경제쇼>가 유튜브 조회수에서 큰 성과를 보였고, 유튜브 전용 콘텐츠인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이 킬러 콘텐츠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구독자 확보에 기여했다.



KBS·KBS 강태원복지재단 <2022 이웃사랑 나눔콘서트> 개최



KBS와 KBS 강태원복지재단은 11월 12일 KBS홀에서 <2022 이웃사랑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 3번째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2022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상’을 수상한 재즈 보컬리스트 ‘마리아 김’과 비브라포니스트 ‘장성호’, 그룹 라비터스의 베이스 ‘김바울’, 새터민 출신 피아니스트 ‘황상혁’과 가야금 연주자 ‘이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 ‘꿈꾸는마을 인천다문화합창단’이 함께 했고, ‘KBS 관현악단’(단장 박상현)도 연주를 함께 하며 음악의 깊이를 더했다.

<2022 이웃사랑 나눔콘서트>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5시 10분 KBS 1 TV를 통해서도 방송됐다.

문경환 중계기술국 감독,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 수상

문경환 KBS 중계기술국 감독이 11월 3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2022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방송/특수영상 분야)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은 한류 콘텐츠의 숨은 주역인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포상 제도다.

문경환 KBS 중계기술국 감독은 드론·와이어캠 등 특수장비를 자체 제작해 대통령·총선 선거방송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